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사람 손이 귀하다

예전에 일본 취재를 간 적이 있다. 밤에 출출해서 숙소 밖을 어슬렁거리는데, 멀리서 '짬뽕'이라고 쓰인 집이 보이는 게 아닌가. 뜨거운 국물이 당기던 참에 얼른 가봤다. 넓은 식당에 어린 직원 혼자 졸고 있다가 나를 맞았다. 짬뽕 한 그릇을 주문하자 그는 웍에 재료를 넣고 볶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의 스위치를 켰다. 놀랍게도 짬뽕 재료 볶는 기계였다. 원통형 몸통 안에 재료를 넣고 볶는데, 원통 사이로 타오르는 불이 들어가서 '불맛' 내는데 손색이 없었다.

10년도 넘은 일이었다. 당시엔 신기하기만 했다. 숙련된 기술자 없이, 인건비를 줄여서 음식을 만드는 데 최적이었달까. 그래도 기계에 맛을 맡긴다는 건 그다지 신뢰도 높은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세계에서 식품 관련 전시회가 다시 열린다. 여러 카테고리 중에 기계분야도 있다. 이 쪽의 화두는 역시 사람 대신 요리를 해내는 기계다. 과거에도 여러 식품기계가 있었지만, 사람의 기술을 대신한다기보다 힘쓰는 일을 맡는 게 주종이었다. 요새 기계는 아주 섬세해졌다. 앞서 짬뽕 볶는 기계도 진화를 거듭해서 거의 사람이 볶는 것과 차이가 없는 제품이 나온다. 일본에서 가장 예민한 요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초밥도 기계화되고 있다. 만두도, 김밥 싸는 기계도 나왔다.

요새 홍콩의 명물 딤섬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이 많다. 딤섬은 만두만을 뜻하지 않지만, 상당 몫이 만두이기는 하다. 만두는 고단하게 반복된 작업을 해야 한다. 당시 홍콩은 독립된 지역이었고, 외곽의 중국 본토에서 온 싼 임금의 이주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다. 20년 전 쯤 홍콩 취재때 만난 한 딤섬 요리사는 "하루 14시간 이상, 1년에 거의 쉬지 않고 일해서 고향에 돈을 부친다"고 했다. 그런 싼 임금의 성실한 외부 노동자의 힘으로 홍콩 딤섬의 저렴한 값과 품질을 지켜왔던 건 사실이다. 이제는 홍콩에서도 더 이상 아주 싼 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만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한류 음식 수출로 대박을 친 한 재벌회사 만두도 자동화 기계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었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사람 손에 필적하게 정교하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며, 유지 보수비도 적게 드는 기계는 이제 요리를 대신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미 떡볶이 같은 단순 작업은 로봇도 할 수 있다. 인간 서버를 대체하는 로봇을 식당에서 흔하게 본다. 식당가의 공통 화제는 손님이 없다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로 압축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다.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월 350만원을 줘도 지원자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댓글의 요지는 이랬다. "주 6일에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350만원 주는 게 결코 높은 임금이 아니다. 게다가 이 식당은 장사가 잘되어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 350만원이 결코 많지 않으니 지원자가 없는 것이다." 맞다. 시급 기준으로 해도 그다지 높지 않다. 게다가 노동 강도도 높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요새 식당이나 술집은 하루 종일 일하는 업종은 인기가 없다. 저녁 장사, 즉 주로 술을 팔며 점심 장사를 안하는 집이 그나마 직원 구하기 유리하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다. 점심과 저녁을 모두 파는 일반적인 식당은 아침 9시에는 출근해야 하고 밤 9시가 넘어야 일이 끝난다. 중간에 좀 쉰다고 해도 가게에 거의 종일 묶여 있다고 느낀다.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에 외면받기 딱 좋다.

예전에야 평생 먹고 살 기술을 배운다는 명분과 절박감이 있었다. 이제 요리 기술은 사람에게 직접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유튜브도 있고 온갖 요리책과 인터넷 레시피가 있다. 더구나 지금 한창 요리를 하는 젊은 세대의 출생 숫자는 나이 든 우리 세대에 딱 절반밖에 안된다. 그러나 식당 숫자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50만 개를 넘나든다. 사람 손이 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변화는 도처에서 느낄 수 있는데, 식당도 마찬가지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치과 방사선은 안전할까

서요섭
조선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치과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은 그 양이 적어서 안전하다고들 이야기한다. 실제로 촬영된 사람들도 특별한 이상을 경험하지 않으며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치과 방사선은 진짜 안전할까.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방사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사선은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또는 그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피사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궤도전자를 이탈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고에너지 방사선을 '전리방사선'이라 하고, 전리를 일으킬 수 없는 정도의 저에너지 방사선을 '비전리방사선'이라 한다. 전리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우주선, X선, 감마선 및 일부 자외선 등이 있고, 비전리방사선에는 일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파, 라디오파 등이 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도시의 가로등 불빛도 비전리방사선으로 방사선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방사선은 전리방사선이다. 전리방사선은 DNA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포의 핵과 세포질의 구조를 손상시켜 분열 지연 및 세포사가 발생할 수 있다. 손상된 세포는 회복되기도 한다. 방사선 조사 후 사멸된 세포의 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방사선이 조사된 경우에는 조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상당량의 방사선이 전신적으로 조사된다면 조직 및 기관의 손상으로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방사선 조사 후 수주 이내에 주로 생식사에 의해 세포의 수가 감소해 나타나는 효과를 단기 효과라 하며,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세포로 구성된 조직이 주로 영향을 받는다. 방사선 조사 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 효과는 혈관의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고, 방사선 감수성이 높거나 낮은 실질세포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리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반응은 확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확정적 영향은 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로 일정 선량(역치) 이상 방사선 피폭 시 나타나는 구강점막염, 피부홍반, 탈모, 백내장, 불임 등이 해당되며 역치를 넘어 피폭된 경우 선량이 커짐에 따라 그 손상의 정도도 증가한다.

확률적 영향은 확정적 영향과 달리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어도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 암의 발생과 유전적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받은 방사선량에 따라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선량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장애 발생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효과는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있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촬영은 전리방사선인 X선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두경부 영역에 한정돼 사용되며 치근단방사선 촬영, 파노라마방사선 촬영, 콘빔전산화단층 촬영이 주로 사용된다. 진단용 방사선 촬영 시 피폭되는 환자의 선량은 세 촬영술 중 상대적으로 방사선 선량이 높은 콘빔전산화단층 촬영이라 할지라도 확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역치선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저선량이다. 즉 확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치과에서 촬영되는 방사선 촬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확률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의 발생과 같은 장애를 유발할 확률은 있으므로 가능성은 매우 낮을지라도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치과에서 촬영되는 저선량의 방사선에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노출된 사람의 손가락에서 암이 발생한 기록이 있다.

치과에서 촬영되는 방사선 촬영이 저선량이고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지만, 아무리 소량의 방사선이라도 장기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확률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 고

걸으면 만나게 되는…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하얀 옥양목에 쪽빛 물감 스며들듯 소리 없이 조용히 번지더니 이제는 온통 파랗게 물들었다. 한동안 사람들 마음 들썩여 명산을 오르던 등산이 걷기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걷기나 등산이나 걷는다는 것은 같으나 체력 소모가 많고 건강해야 가능한 등산에 비하여 체력과 건강에 자신이 없더라도 누구나 집을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 걷기다.

걷기가 파랗게 물든 것은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생기면서다. 입소문을 타고 육지와 산등성이를 넘나들더니 하나둘 그 길에 선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걷기 물들임이 시작되었다. 거기에다 특별한 장비 없이 들숨과 날숨으로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걷기 물들임에 가세했다. 건강과 여행을 동시에 챙기려는 사람들이 함께 또 혼자서 길 위의 순례자로 나서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광주에서도 '빛고을 산들길 사랑모임' 같은 단체가 자연 발생하여 둘레길을 잇고 열어서 광주를 걷고 있으니 이쯤 되면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걷는 사람을 위해서 지역마다 동네마다 자연을 벗 삼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든 관광객 유치든 상관없이 길을 만드는 행정이나 그곳을 찾는 발길이나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을 위한 노력이리라.

걷기를 생각하다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걷지 않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두 발로 걷지 않으면 퇴화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지금 두 발과 두 다리가 걷기 본연의 임무를 상실해 버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결국 걸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뜻이겠다. 욕망의 질주와 경쟁에 빼앗겨버린 다리와 발은 자동차에 갇혀서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숨 돌릴 틈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었으니 걷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호수와 공원에 길을 내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자연의 향기에 취하는 길을 다듬는 중이니 길을 다듬어 속도를 줄이고 멈춤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거름을 주라고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불러대는 데 가지 않을 자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천천히 걷다가 작고 소중한 것들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되는 기쁨은 덤이니 걷지 않고는 배겨날 재간이 있겠는가.

걷기는 알 수 없는 오묘한 맛이 있다. 평평한 길을 걸을 때 찾아오는 슴슴함은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봄날 연초록 맛이 있다. 그런가 하면 굽이진 길을 돌아나갈 때 찾아오는 쓸쓸함은 가을날 노을빛 맛이고, 언덕길 오를 때 찾아오는 뜨거움은 여름날 뜨거운 햇볕 맛이다. 깔딱고개 헐떡일 땐 휘몰아치는 매운맛이다. 그 사이를 넘나드는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었다가 셋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 되기를 반복하는 그것, 그것이 길 위에 자기를 세우고 걷게 한다.

마음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는 수행으로서 걷기를 이끈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뒤 걷기 명상으로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케 했다. 걷기 명상가요 수행자인 틱낫한 스님처럼 구도와 수행까지는 아니어도 길 위에 선 모든 사람은 명상가이며 자가치유자들이다.

육체에 기대지 않고 마음에 기대지 않고 정신에도 기대지 않는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삼위일체의 맛, 그 극치 뒤에 찾아오는 끝없는 평화, 그 맛을 마다할 사람은 없으리라. 걷는 길이 설령 가파른 언덕일지라도 가끔은 뒤돌아보고 가끔은 울기도 하고 또 가끔은 웃기도 하면서 인생살이 되새김질도 하다 보면 내일을 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길 위에 자기를 세우고 걷고 또 걷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서는 만나고 또 어디선가에서는 갈라질 테지만 주어진 길과 걸어야 할 길을 조율하면서 아주 가끔은 너울너울 춤도 추면서 홀로라도 걷는 것일 테다. 아득한 먼 날에서 시작되었을 나와 우리의 걷기를 기억할 수 없지만 출발하였을 거기로부터 걸어온 걸음걸이를 생각하다가 뒤돌아 걸어온 길의 의미를 묻는다. 그 의미를 알 때까지 오늘도 걸을 일이다.

社 說

유튜브 1천만 뷰 돌파…뉴미디어 시대 선도

광주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지난 19일 기준으로 1000만 조회 수를 돌파했다.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로 달성한 쾌거로 호남의 대표 언론인 광주일보가 전통 레거시 미디어에 이어 뉴미디어 시대 지역 언론도 선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광주일보는 레거시 미디어인 인쇄 매체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흐름인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2017년 1월 11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해 왔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조회 수 1000만 뷰 달성을 이루게 된 데는 활자와 영상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신속하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슈가 있는 현장에 빠르게 접근해 심층 보도하고 독자들의 관심이 많은 국내 프로야구 최대 인기 팀인 KIA타이거즈 관련 소식과 남도의 맛과 멋 관련 콘텐츠를 생산한 것이 주효했다.

보도 관련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는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인터뷰다. 지난 3월 30일 내보낸 전우원 인터뷰는 단시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85만 뷰를 기록했다. 당시 전우원은 할아버지인 전두환을 대신해 5·18 학살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는데 점심도 거른 취재기자가 끈질기게 동선을 추적해 빨래방이란 이색 장소에서 인터뷰를 성사시켜 전국적인 화제를 낳았다.

'야구 도시' 광주에 걸맞게 KIA타이거즈를 소재로 한 다양한 스토리도 매주 3~5개씩 업로드하는데 영상 1개당 평균 1만~5만명이 시청할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매체 시대, 언론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레거시 미디어의 본류를 유지하면서도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유튜브 등을 통해 쌍방향 미디어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넘쳐나는 영상 콘텐츠 속에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취재를 통해 진짜 뉴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콘텐츠 생산으로 독자들의 호응에 부응할 것이다.

인구감소 위기 오죽하면 맞선까지 주선할까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실제 결혼까지 성사된 커플도 있어 성과를 내고 있다.

'하트시그널', '나는 SOLO' 등 방송 연애 프로그램을 차용한 행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실제로 광양시가 청년들의 비혼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광양 솔로엔딩' 프로그램의 경우 최근 남성 경쟁률이 3.5대 1에 달했고 여성 경쟁률도 2대 1로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65쌍이 탄생했고 4쌍은 결혼에 성공했다.

보성군은 11월 10일부터 1박 2일간 '보성愛서 우연한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흥군이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하고 있는 '장흥 바로알기 투어'에도 '동네 친구'를 사귀기 위한 이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에서도 '심쿵 설렘 청춘남여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있는데 관내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50명(여성 16명, 남성 34명)이 지원했다.

지자체들이 이 같은 남녀 매칭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의 만남을 통해 결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인구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줄어만 가는 농어촌 인구를 조금이나마 늘려 보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다.

지자체들이 오죽하면 맞선까지 주선하며 인구 늘리기에 나서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절박한 시도인 만큼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이런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구상해 황폐해져 가는 지역 농어촌을 살릴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피아노 섬' 신안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이 흐른다. 무대 뒷쪽으로 보이는 건 평온한 바다와 점점이 박힌 섬들. 시간이 지날수록 붉어지는 하늘 저편의 노을이 멋진 배경이 됐다.

지난 2013년 통영 사량도에서 열렸던 백건우의 '섬마을 콘서트' 영상을 보며 위로를 얻는다. 2011년에도 위도와 연평도에서 콘서트를 열었던 그는 "공연을 마치고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라고 계속 인사하는데 고마우면서도 감격스러웠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벅찼다"고 말했다.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연주의 매력은 공중파 PD가 폐가를 사면서 시작 된 시골살이를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 '오느른'에도 등장한다.

17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유키 구라모토의 '시골길 라이브 콘서트'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시골마을길에서 연주가 시작된다. 'Lake louise' 'Romance' 등 우리에게 친숙한 멜로디가 동틀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영상은 한 편의 그림같다. 한적한 시골길과 추수가 끝난 논, 하늘 높이 뻗은 가로수길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한다.

10월이면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신안군 자은도 해변에서도 낭만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104대의 피아노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행사의 총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임동창이 작곡한 '아름다운 피아노의 섬, 자은도'를 비롯해 클래식, 영화 OST, 대중가요를 재해석한 곡들이 가을 밤을 수놓는다. 관람객들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10월 20~22일까지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연주회는 신안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프로그램 중 하나다. 연극 '표해시말', 댄스 경연대회, 판소리 공연, 줄타기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푸드 트럭도 등장한다.

아름다운 노을과 잔잔한 파도,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바닷가 피아노 연주회에서 잊을 수 없는 가을날의 추억을 만드시길.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